

서울 종로구 공평동 유적 내 유기물 수혈에서 발견된 동물 뼈 검토

김 선^{1,2}, 홍종하³, 신동훈⁴

¹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²세종대학교 역사학과,
³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⁴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Animal Bones Found at Gongpyeong-dong Archaeological Site, the Capital Area of Joseon Dynasty Period

Sun Kim^{1,2}, Jong Ha Hong³, Dong Hoon Shin⁴

¹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²Department of History, Sejong University
³Institute of Korean Archaeology and Ancient History, Kyung Hee University
⁴Department of Anatom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bstract : Gongpyeong-dong site is located at the Old Seoul City area of Joseon dynasty period. Excavated remains of the site include building, furnace, lavatory and drainage with others. Particularly a number of animal bones were also found at the 15th century pits (n=7) situated at the layer VI of the site. Gross examination revealed the existence of horse bones from pits 1 to 3, also with bovine bones identified at the pits 4 and 5. Minimum number of individuals for each pit ranged between 1 to 3; but the bones of disparate species have not mingled within them. Since butchery had not been permitted in the Gongpyeong-dong area during Joseon period, the cattle and horse bones we collected might have been the vestiges of food waste disposal on the ground. This is the first zooarchaeological report on the animal remains buried at highly populated city areas during Joseon dynasty period.

Keywords : Joseon period, Pit, Animal bone, Cattle bone, Horse bone

서론

한양도성 내 문화재 발굴조사는 1985년부터 근대까지 궁

이 연구는 2017년 교육부 이공학개인지초연구 지원사업 (NRF-2017R1D-1A1B0303012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April 20, 2020; **Revised:** June 22, 2020; **Accepted:** June 22, 2020

Correspondence to: 김선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E-mail: noinne74@hanmail.net

궐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03년 실시된 '청계천 복원 구간 문화재 지표조사'와 이후 청계천 복원 공사와 더불어 진행된 청계천 유적 발굴을 계기로 궁궐 이외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1,2]. 2004년 들어서는 종로구 청진동 일원의 '종로 청진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3]. 당시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시전 행랑 및 북측 배후의 건물지 유구들이 지표에서 4.0 m 내외의 깊이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한양도성의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4]와 한양도성 내부

에서도 다양한 유적들이 시굴 및 발굴 조사되었다[5].

공평동 유적은 서울시 내 도시환경 정비구역에 위치하며 최근 시굴조사 결과 3차례의 중복된 조선시대 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본 연구진에 의해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중기~근대에 이르는 건물지, 아궁이, 대형 항아리를 이용한 화장실,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 초기에 축조되어 임진왜란 이전 시기까지 유지되었던 건물지에서 동물 뼈(소, 말, 돼지 등)가 매납된 수혈유구 등이 중복되어 확인되었다[6].

공평동은 의금부 등 관공사가 주로 배치되어 원칙적으로 소나 말 등의 도살이나 뼈의 매장 등은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공식적으로 한성(서울)의 소고기 공급은 성균관 근처의 반촌(泮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현방(懸房)에서 소를 도살하여 공급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례는 도축장으로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수혈을 파고 동물 뼈를 정연하게 매납한 특이한 사례이다. 이는 아직 고고학계에 정확히 보고된 사례가 없는 역사적/동물고고학적으로 흥미로운 발굴결과이지만, 아직 이러한 발견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보고에서는 서울 종로구 공평동 유적의 간략한 설명과 함께 VI 문화층 수혈 유구에서 발견된 동물 뼈의 양상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사대문 안에 동물 뼈가 정연히 매납된 이유를 추측해 보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서울 종로구 공평동 유적은 자연 층위를 포함하여 총 7

개의 층이 확인되었으며(Fig. 1A)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우선 I 층은 20세기 전반(근·현대~일제강점기)으로 추정되며 지표에서 약 0.2~1.5 m 내외이다. 여기서는 최근까지 사용된 건물의 기초부와 교란층이 확인되었다. 발견된 유물은 중호문 기와 및 일제강점기 도자기편 등이다. 그 아래 II 층은 19세기까지 층위이며 지표에서 0.7~1.5 m 내외의 깊이이다. 유구는 근·현대 건물 조성 및 철거 과정에서 상당 부분 교란된 상태였는데 조선 후기 등에 건축된 건물터를 재활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차례 증 개축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았다. 유물은 백자편과 중호문 기와 편 등이 있다. 한편 III 층은 18세기까지의 토층으로 지표에서 약 1.3~2.5 m 내외(해발 ~27 m)이며, 건물지의 기초부로 입사지정과 장초석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모래받침 백자편과 중호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IV 층은 17세기까지 지층으로 보이며 지표에서 약 2.1~3.0 m 아래이다. 관련 유구로는 건물지 9동과 담장 시설 2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죽절급 백자편과 중호문 기와편이다. V 층은 16세기까지 토층으로 지표로부터 약 2.7~3.5 m 내외 아래이며 관련 유구로는 건물지 11동, 담장 시설 1기, 석렬 2기 및 배수로 시설, 적심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죽절급 백자편 및 인화문 분청사기편, 중호문 기와편 등이다. 발굴에 대한 상세한 조사 내역은 기 발행한 발굴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술되었다[6].

한편 동물 뼈와 관련된 제 VI 층은 15세기까지의 토층으로 지표에서 약 3.3~4.5 m 내외 아래이다. 회색 사질점토와 흑색 점사질토가 층을 이루고 있으며, 관련 유구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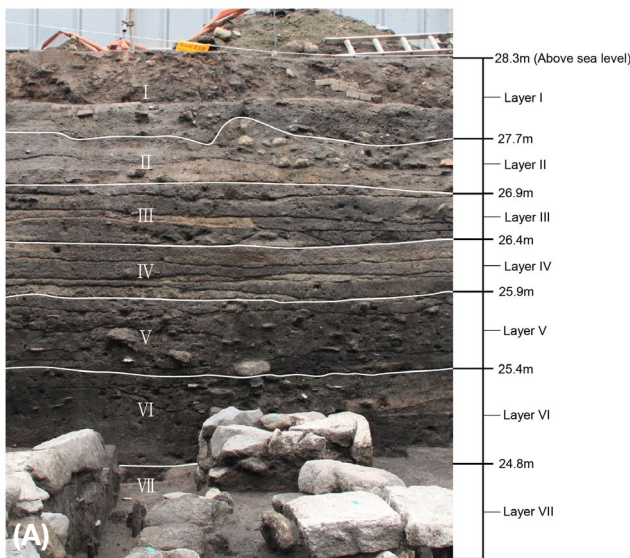


Fig. 1. Information of Gongpyeong-dong archaeological site. (A) Geological strata of the site. Note layers I to VII. Animal bones were found at Layer VI; (B) The location of pits (typed in red color) at Layer VI of excavation site. Animal bones were found inside the pits.



Fig. 2. Excavation of animal bones at Gongpyeong-dong archaeological site. (A) Note the protective clothing put on to minimize contamination during sampling; Bones found at (B) pit number 1, (C) pit number 2, (D) pit number 3 (white arrow) and 5 (yellow arrow). (E) and (F) Magnified image of pit number 3 and 5 in (D); Cattle cranium found at (G) pit number 4; (H) Magnified image of cattle cranium at pit number 4.

건물지와 담장지 및 배수로 등 건물지 11동과 담장시설 2기, 배수로 1기, 동물 뼈가 확인된 유기물 수혈 및 유기물만 확인되는 수혈 다수가 확인되었다(Figs. 1B and 2). 유물은 일부 백자편과 분청사기편 및 중호문, 어골문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동물 뼈가 확인된 VI층의 유구 현황은 도면 7에 자세하다. VI 문화층에서 확인된 동물 뼈 관련 유기물 수혈시설 7기는 서쪽의 3호·4호 건물지 주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어 이 건물지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수혈 내부에서는 분청사기편이 함께 출토되어 조선시대 초기 유구임을 알 수 있다. 수혈에서 발굴 수습된 동물 뼈는 서울의대 생물인류학 및 고병리 연구실로 이동하여 육안적 동정을 실시하였다. 동정 과정은 Budras와 Habel [7], Ashdown과 Done [8]의 저작을 토대로 발굴된 뼈와 실제 동물 종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비교·대조하여 분석하였다. 뼈는 부위별로 각각 분석하여 좌우구분에 의한 최대뼈대수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개체수(minimum number of individuals: MNI)를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각 수혈에서 확인된 뼈에 대한 동물고고학적 육안 동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수혈에서는 각각 한 가지 종류의 동일 종 동물 뼈만 확인되었으며 최소추정개체수(minimum number of individuals: MNI)는 수혈마다 1~3으로 달랐다. 자세한 정보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정 결과 1~3호 수혈에는 말뼈가, 4~5호 수혈에는 소 뼈가 각각 매납된

Table 1. Species identification of animal bones

Sampling location	Species	Minimum number of individuals
Pit number 1	<i>Equus caballus</i>	2
Pit number 2	<i>Equus caballus</i>	1
Pit number 3	<i>Equus caballus</i>	2
Pit number 4	<i>Bos taurus</i>	1
Pit number 5	<i>Bos taurus</i>	3



Fig. 3. Animal bones for species identification performed at the lab. (A) Horse pelvic girdle bone at pit number 1; (B) Horse cranium at pit number 2; (C) Anterior view of right horse femur at pit number 3; (D) Cranium of cattle at pit number 4; (E) Anterior view of right cattle femur at pit number 5.

Table 2. Bony parts identified during zooarchaeological examination

Sampling	Collected bones
Pit number 1 (<i>Equus caballus</i>)	Rt. Humerus (1); Rt. Radius (1); Rt. Ulna (1); Lt. Femur (1); Rt. Femur (1); Pelvic girdle bone (2); Lumbar vertebrae (3); Rib (3)
Pit number 2 (<i>Equus caballus</i>)	Cranium (1); Rib (8); Lumbar vertebrae (3); Metacarpal bone (1); Metatarsal bone (1)
Pit number 3 (<i>Equus caballus</i>)	Mandible (1); Atlas (2); Axis (2); Lt. Scapula (1); Rt. Scapula (1); Lt. Humerus (1); Rt. Humerus (1); Lt. Radius (1); Rt. Radius (1); Lt. Ulna (1); Rt. Ulna (1); Lt. Femur (1); Rt. Femur (1); Lt. Tibia (1); Lt. Tibia (1); Cervical vertebrae (8); Thoracic vertebrae (17); Lumbar vertebrae (8); Sacral vertebrae fragments (7); Pelvic girdle bone (1); Sacrum (1); Metacarpal bone (1); Metatarsal bone (1)
Pit number 4 (<i>Bos taurus</i>)	Cranium (1)
Pit number 4 (<i>Bos taurus</i>)	Cranium (1); Mandible (1); Atlas (1); Lt. Scapula (1); Rt. Scapula (1); Lt. Humerus (1); Rt. Humerus (1); Lt. Radius (1); Rt. Radius (1); Lt. Ulna (1); Lt. Femur (2); Rt. Femur (1); Lt. Tibia (1); Rt. Tibia (3); Lt. Calcaneus (1); Metacarpal Bone (3); Metatarsal Bone (4); Sacrum (3); Ribs (39); Cervical vertebrae (2); Thoracic vertebrae (8); Lumbar vertebrae (6); Caudal vertebrae (1); Pelvic girdle bone (1)

* The number of Cervical vertebrae refers to the number of others except for Atlas and Axis; **Lt, Left; Rt, Right

것으로 추정되었다(Fig. 3). 동정된 뼈의 각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은 Table 2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평동 유적은 동쪽으로는 인사동, 서로는 청진동과 접해 있고, 북쪽은 삼봉길과 태화로를 경계로 견지동과 마주하며, 남으로는 종로를 경계로 서린동, 관철동과 접해 있다. 조선 전기 한양도성을 5부 52방으로 분류할 때 대상지역은 중부 견평방에 속한다[9].

발굴조사 구역은 영조 27년(1751) 간행된 『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 의하면 중부 견평방 후동계에 속하며, 18~19세기 고지도 등에 禁府後洞으로 기록되었다. 1729년 의금부도사를 지낸 겸재 정선의 금오계획도에서는 18세기 의금부와 함께 대상지역의 간략한 모습이 확인되며,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 용도와 필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자료는 1914년 지적원도이다. 1914년 지적도와 비교한 결과 지적의 변화가 이루어진 곳과 지적선과 맞지 않게 유구가 노출된 경우가 확인되었다. 유구와 유물들을 통한 분석 결과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는 건물지 축조수법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동물 뼈가 확인된 수혈과 건물지가 확인된 유구는 조선 시대 초기 15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공평동에는 의금부 등 관공서가 주로 배치되어 원칙적으로는 소나 말 등의 도살이나 뼈의 매장 등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10]. 하지만 이 지역은 의외로 동물 뼈가 매납된 수혈 유구가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발굴 결과가 학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증례가 서울 사대문 내 공평동 지역 등 관공서 밀집 지역에서 동물 뼈가 질서정연하게 매납된 흔적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되는 동물 뼈 사례는 식용 후 폐기된 동물 뼈가 저습지나 패총과 같은 유적에서 단편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들어 삼국 시대 유적을 중심으로 동물을 도살한 후 질서정연하게 매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11]. 특히 금번 공평동 유적에서 발견되는 동물종인 소와 말의 경우 이러한 매장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소의 경우 진주 상촌리 유적에서는 소 한마리를 도살한 후 이를 구덩이에 그대로 매납한 사례가 발견된 바 있고[12], 그 밖에도 김해 대성동 1호분, 대구 가천동 유적 등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견되었다[13,14]. 말의 경우에는 고고학계에서 이른바 마묘(馬墓)나 마갱(馬坑)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해당 동물을 질서정연하게 매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데 김해 대성동 고분군 유적 등에서 이러한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11,13,15].

다만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금번 공평동 유적과 같이 말이나 소를 도살하여 질서정연하게 매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한반도 삼국시대와 소/말 매납과 같은 사례는 대부분 고분에 피장자와 함께 부장되어 있는 형태로 발견되거나 의례적으로 희생된 것이라 알려져 있는데 [11,15], 고려/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의례에 의한 동물희생 풍습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가 조선 시대에 발견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조선시대에 소와 말과 같은 가축의 도살이 극히 드물지는 않았다. 세종실록 27권에 의하면 우마의 고기를 먹는 자는 태형 50대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도살이 근절되지 않으므로 철폐하여 엄중히 다스리라는 상소가 전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외 일성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도 전국에서 도살되는 소가 너무 많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조선시대에 소나 말의 도살이 전국적으로 횡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16].

공평동 유적에서 발견된 소와 말의 경우 조선시대에 법령으로는 명백히 금지가 되어 있었음에도 모종의 이유로 이 지역에서 소나 말을 취식하고 그 나머지를 구역 내에 매장한 흔적으로 추측된다. 다만, 세종실록 128권에 사직에 친제를 하거나 기우제 등 나라에서 주관하는 의례를 지낼 때는 소, 양, 돼지 등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4대문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살코기가 많은 부분은 따로 관공서에 하사하였을 가능성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정확한 역사적 사실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유사한 유구에 대한 보다 많은 검토와 이로부터 출토된 동물 뼈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 사

이 동물고고학적 연구는 조사 종료 후 발간된 서울 종로구 공평동 유적 발굴 보고서(2016)에 실렸던 내용을 추가적 검토 후 보완하여 투고하는 것이다. 논문 정리에는 경희대 사학과 김지은 님의 협조가 있었음을 밝힌다.

REFERENCES

1.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cavation report of Changdeokgung Palace. Seoul: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984. Korean.
2.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heonggyecheon ar-

- chaeological site. Daejeon: 2004. Korean.
3. Hanguggeonchugmunhwayeonguso. Seoul cheongjin 6jiguyujeog I, II. Seoul: Hanguggeonchugmunhwayeonguso; 2006. Korean.
4. Hanu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Jongro songwoldong seoulseonggwag-yujeog. Suwon-si: Hanu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0a. Korean.
5.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Jongro-gu insadong yujeog. Seoul: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2018. Korean.
6.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Seoul Jongro-gu GongPyeong-dong archaeological site. Seoul: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2016. Korean.
7. Budras KD, Habel RE. Bovine Anatomy, 2nd edition. Germany: Schlutersche; 2011.
8. Ashdown RR, Done SH. Color Atlas of Veterinary Anatomy Volume 2 - The Horse. LA: Vetbooks; 2011.
9. Jongro-gu. Jongroguji-上. Seoul: Jongrogu; 1944. pp. 72-3. Korean.
10. Seoulsisapyeonchanwiwonhoe. Hangyeongsiglyag. Seoul: Seoulsisapyeonchanwiwonhoe; 1956. Korean.
11. Lee JJ. Hanbando Seonsa·Godae Dongmul Sayugui yeogsawa geu uimi. In: Nong-eob-ui gogohag. Seoul: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2013.
12. Samgang Cultural Heritage Researcher. Jinju sangchonli yujeog -sogaya doyoji-. Jinju-si: Samgang Cultural Heritage Researcher; 2010. Korean.
13. Kyung Sung University Museum. Gimhae daeseong dong-gobungunI. Busan: Kyung Sung University Museum; 2000. Korean.
14. Sungrim Cultural Property Research Center. The ancient site at Gacheon-dong, Daegu. Gyeongju-si: Sungrim Cultural Property Research Center; 2010. Korean.
15. Kim GS. Ulinala godaeui mal. In: The Horse in ancient times : divinity and utility. Jeju-si; Jeju National Museum. 2002. Korean.
16. Shin DH, Chai J-Y, Hong JH, Seo M. Historical Details about the Meat Consumption and Taeniases in Joseon Period of Korea. Korean J Parasitol 2017;55:457-60.

간추림 : 서울 공평동 유적은 사대문 내 조선시대 유적으로 건물지, 아궁이, 화장실,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고, 특히 임진왜란 이전 시기까지 유지되었던 건물지, 적심 부근의 수혈유구 7기에서 동물 뼈가 다수 확인되었다. 동물 뼈가 확인되는 수혈은 서쪽 3호 및 4호 건물지 주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어 이 건물지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고고학적 육안적 동정 결과 1호부터 3호까지 수혈에서는 말 뼈가 확인되었으며 4호 및 5호 수혈에서는 소 뼈가 확인되었다. 각 수혈의 최소 추정 개체 수는 1~3이지만 다른 종의 뼈가 혼입되어 있지는 않았다. 해당 동물 뼈가 발견된 지역은 조선시대 당시 한성부 사대문 안 지역에서도 관공서가 밀접해 있던 지역으로 동물 도축 등이 허용되는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단순 취식 후 그 자리에 폐기한 흔적으로 추정한다. 이 보고는 조선시대 관공서 지역에서 동물 뼈가 많이 매납되었다는 것을 동물고고학적 기법으로 밝힌 최초의 보고이다.

찾아보기 낱말 : 조선시대, 수혈, 동물 뼈, 소 뼈, 말 뼈